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6) (5/8/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3 장 “진리의 교훈” 5-6 절, 제 4 장 “사려 깊게 행함” 1 절

마 25:31-33, 40 -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전 2:11 -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딤후 1:1-2 -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롬 1:21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 23:11 -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빌 3:8-9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창 8:21 -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5. 만일 사람들이 논쟁을 일삼는 데 들이는 관심과 노력을, 악을 뿌리 뽑고 덕을 세우는 일에 쏟는다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악한 일들과 추한 일들이 없을 것이고, 수도원에도 이러한 방종함이 없을 것입니다. 장차 저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이고, 얼마나 말을 잘하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마 25 장).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학식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가들과 박사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내게 한 번 말해 보십시오. 생전에 그들이 앉아 있던 자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후임자들은 자신들의 선임자들이었던 그 대가들과 박사들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꽤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전 2:11).

말씀과 해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는데 힘을 쓰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잘 알고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행함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힘, 에너지, 자원, 시간 등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디에 써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엉뚱한 곳에 쓰고 허비한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할 것이다. **전 12:14 -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6.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였던 지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이 읽고 연구하였던 많은 것들이 그래도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헛된 지식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딤후 1:2). 그런 사람들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져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롬 1:21).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고, 온갖 최고의 명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마 23:11).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빌 3:8).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해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여 추구한다. 그들은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안다.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룹 중의 한 사람이며 종교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흠잡을데가 없었던 사도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 3:8-9) 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찾고, 추구하며, 사모해야 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나를 버리고 그 분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제 4 장 “사려 깊게 행함”

1.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을 모두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게 말하고 좋은 쪽으로 믿기보다는 나쁘게 말하고 나쁜 쪽으로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들은,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에 이끌리며 말에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말씀과 해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들, 심지어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성찰하고 분별하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살핀다. 믿음의 사람은 잘 경청한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주의 뜻을 찾을 줄 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쉽게 좋게 말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깊은 분별의 모습을 가짐과 함께 나 자신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잘못 말하고 행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믿고 아는 대로 실천하며,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쪽정이에 그치지 않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삶의 우선 순위로 삼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에 성령의 충만, 회복의 은총, 건강과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